

# “세계 1위를 지켜라” 고진영 VOA 출격



아이언 샷하는 고진영. 연합뉴스

### 이번 시즌 두 번째 대회... 반등 요긴한 시점 박인비·박성현·이미림·이정은·유소연도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복귀한 고진영(25)이 세계랭킹 1위 사수에 나선다.

고진영은 오는 4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텍사스주 더플로니의 월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출전 한국에 머물다 지난달 미국으로 건너간 고진영은 펠리컨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 출전이다. 2020년 첫

출전 대회였던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공동 34위에 그친 고진영은 반등이 요긴한 시점이다.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세영(27)이 불과 0.41포인트 차이로 좁혀와 70주 넘게 지켜온 세계랭킹 1위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김세영이 VOA 클래식에는 출전하지 않기에 다시 격차를 벌일 기회가.

김세영은 이 대회에 이어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과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대비하느라 VOA 클래식은 건너뛴다.

고진영은 또 출전 여부가 불투명

# 제주도태권도협회장 선거 첫 출사표

### 윤상택 교수 1일 출마 선언



윤상택 교수.

제주도태권도협회 수장에 도전할 첫 출사표가 나왔다.

제주도태권도협회 총무이사과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상택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1일 회장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제주 태권도계의 고질적인 갈등의 구조를 벗겨내고, 화합과 단결을 옛 제주 태권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핵심 공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내 모든 태권도장과 육성학교에 50만원씩 지원 ▷본인 소유 토지(제주시 내도동)에 제주도태권도회관 건립 ▷협회의 어려운 재정 해소를 위해 자비로 2억

원 출연 등을 꼽았다.

윤 교수는 “유아부터 중학까지 협회 비등록 선수를 대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신설해 저변을 넓혀겠다”며 “2014년 전국체전을 우승 이후 주춤하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는 현재 제주도체육회의 관리 규정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는 치러질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 “나성범 공격 장점, 나이·부상 걸림돌”

### 미국 현지 언론 분석

나성범(31·NC 다이노스)의 미국프로야구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소식을 접한 미국 현지 언론은 공격력은 인정하면서도 30대에 접어든 나이와 무릎 수술 이력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미국 CBS스포츠는 1일(한국시간) “나성범은 KBO리그에서 손꼽는 거포다. 2020년에는 타율 0.324, 출루율 0.390, 장타율 0.596, 34홈런, 2루타 37개로 활약하며 NC의 우승에 공헌했다”고 전했다. 나성범의 공격력은 인정하는 뉘앙스다.

그러나 “나성범은 우익수와 지명 타자로서만 활용할 수 있고, 이미 30대다. 아마도 메이저리그에서 치열한

영입전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나이와 포지션’을 한계로 꼽았다.

트레이드머서스닷컴은 나성범의 무릎 수술 이력에 주목했다.

올해 엄청난 활약을 하며 재기에 성공했지만, 트레이드머서스닷컴은 ‘부상 후유증’을 우려했다.

트레이드머서스닷컴은 “나성범이 올해 우익수로 출전한 건, 50경기뿐이다. 도루도 단 3개에 그쳤다”며 “나성범이 올해 뛰어난 성적을 올렸지만, 수술 이력은 메이저리그 구단이 영입을 주저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에도 나성범을 ‘평균 이상의 힘을 가진 좌타자’라고 공격력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연합뉴스

# 울산 구한 윤빛가람 또 한 번 ‘멀티골’

### FC도쿄에 2-1 역전승 조 1위로 ACL 16강행

울산 현대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참가한 K리그1팀 중 가장 먼저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울산은 30일 카타르 도하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ACL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 윤빛가람의 멀티 골을 앞세워 FC도쿄(일본)에 2-1로 역전승했다.

4차전까지 승점 10을 획득해 F조 선두를 달리던 울산은 5경기 무패(4승 1무)를 이어가며 승점 13을 쌓아 다음 달 3일 상하이 선화(중국)와의 최종 6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울산은 경기 시작 1분 만에 실점하며 초반엔 흔들렸다.

자기 진영 오른쪽 측면에서 박주호가 상대 압박 사이로 공을 빼내려다 빼앗겨 도쿄의 패스 플레이로 연결됐고, 페널티 아크 오른쪽 나이가겐스케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스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후에도 도쿄의 빠른 패스에 수비가 대처하지 못하며 여러 번 위기를 맞았던 울산은 전반 37분 이상현 대신 배태광 고경진을 투입해 중원의 변화를 주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울산 현대와 FC도쿄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볼 경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반 44분 윤빛가람이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으로 골문을 열어 균형을 맞췄다.

후반 38분에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원두재도 신진호 대신 그라운드를 밟아 격리를 마치고 첫 경기에 나섰다. 김인성을 대신해 이근호가 출전했다. 울산은 구한 건 다시 윤빛가람의

오른발이었다.

후반 40분 원두재의 패스를 받은 윤빛가람이 페널티 지역으로 공을 끌고 들어가 상대 선수를 제친 뒤 오른발 슈팅을 꽂아 역전 결승 골을 뽑아냈다.

윤빛가람은 상하이와의 2차전에 이어 또 한 번 멀티골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연합뉴스

# 2020 PGA 투어 마지막 우승자는...

###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미를 장식하는 대회가 3일부터 멕시코에서 펼쳐진다.

3~6일(현지시간) 멕시코 플라야델 카르멘의 엘 카멜레온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마야코바 클래식(총상금 720만 달러)은 2020년 PGA 투어의 마지막 정규대회다.

이후에는 11~13일 이벤트 대회인 QBE 숏아웃만 열릴 뿐, 내년 1월 7일 개막하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까지는 휴식기가 이어진다.

애초 출전을 예고했던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계획을 바꿔 휴식을 취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회엔 세계랭킹 3위 저스틴 토머스(미국)를 필두로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우승 경쟁에 나선다.

이밖에 세계랭킹 13위 대니얼 버거, 19위 토니 피나우(이상 미국), 개최국 멕시코의 대표주자인 카를로스 오르티즈, 아브라함 안세르 등도 출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마스터스 준우승자 임성재(22)는 없지만, 안병훈(29), 강성훈(33), 이경훈(29), 최경주(50)가 출격해 2020년 ‘유종의 미’를 꼽는다.

2012년 이 대회 우승자 존 허(미국)와 2018년 준우승자 대니 리(뉴질랜드) 등 교포 선수들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UEFA 챔피언스리그 사상 첫 여성 심판인 스테파니 프라파르. 프랑스의 축구 심판 스테파니 프라파르가 오는 2일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와 다이나모 키예프 경기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사상 최초로 여성 심판을 맡게 됐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공감 스페셜 11:55 슈퍼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 8: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9:30 930 MBC 뉴스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도도솔솔리리(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진 해피플러스 8:50 찬란한 내 인생(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새 2020 9:10 종로이집 10:10 SBS 뉴스 10:30 설마나는 오늘 11:00 에나멜리 11:30 에나멜리 런닝맨 스페셜 11:45 라바 아일랜드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뽀롱뽀롱 유치원 8:45 워킹킹 리턴즈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비즈뉴스 리부 플러스 14:45 정음에서 살아남기 16:15 울리 앤 울리 16:30 뽀롱뽀롱 유치원 18:00 생방송 특목보 보니 하니 19:30 자이언트 팽TV 22:45 극한직업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시사 직격(재)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2020 전국 어린이 판소리 원정왕대회 15:40 팔도밥상 스페셜 16:00 시사간선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3:20 영상앨범 산(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공부책 읽기2 15:30 TV 유치원 16:00 TV는 사랑을 싣고(재) 17:00 신이파르트 고스트볼 더블X 17:30 팔도밥상 스페셜 17:50 통합뉴스룸 DT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체널 12:50 뽀롱뽀롱 친구친구 스페셜 13: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선 15:20 잠깐 쉬엄말 아때요? 15:25 이 맛에 신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테마기획 길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토티신이 왔다 2 리스트 천스 1부 14:00 뉴스브리핑 16:00 팔도강산 GoGo(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때나기 좋은 날 여행 기행 22:45 극한직업	제주 CBS FM 93.3MHz, 99.1MHz 7:00 길거리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항해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텔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광점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TV는 사랑을 싣고 21:30 바람편지 죽는다 22:10 바람편지 죽는다 1부 22:40 나를 사랑한 스파이 23:1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부 23:50 스튜디오 K	18:15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찬란한 내 인생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나를 사랑한 스파이 22:40 라디오스타 1부 23:40 라디오스타 2부	18:50 전국 TOP10 가요쇼(재)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토티신이 왔다 2 리스트 천스 1부 21:35 토티신이 왔다 2 리스트 천스 2부 22:05 토티신이 왔다 2 리스트 천스 3부 22:35 백중원의 골목식당 1부 23:20 백중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8:00 제주 청सन 리포터 9:00 KCTV 뉴스 9:30 도시재생 프로젝트 제주ING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KCTV 시청자대상 13:10 KCTV 다류스페셜 14:00 제주 청सन 리포터 15:1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8:30 구석구석 제주프로젝트 제주ING 20:0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21:00 KCTV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일**

김종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사소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니 조심. 48년 동료나 동업자, 거래처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유나 차광운전은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말 끝맺음 있는 말에 현혹되지 쉬운 날.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여지 마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물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쟁업체 등장. 61년 사업이나 진로개발 등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73년 약속이 충족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신약에 충실하라. 85년 기초가 튼튼해야 하니 매사를 꾸준하게 다져 나가는 습관이 필요.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확함이 돋보인다. 62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자녀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광운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39년** 친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격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에 시달릴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추진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킨다.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니 즉시 화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시가지가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88년 대담하게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이 기다리고 있다.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요망. 77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있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풀어나고 계획이 없으나 차질이 생긴다.

**42년** 갈 곳 많이 찾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출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려면 대인관계를 지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합함을 좋아해도 비방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니 하지 마라. 78년 집안에 뒷사람 일로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로 헤드리면 좋다.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4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에서의 기쁜 일이 없다. 관계가 있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관계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역이 있고 아이디어가 새롭다. 91년 의욕이 증가하면 주의 요망은 하고 신중한다.

**44년** 좋은 일 속에 흉이 도사리니 미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체체술이 뛰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회에 인정받는다. 80년 시험, 공부의 좋은 나 직장인은 갈등 고민. 92년 관청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히려 귀는 늦지만,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히려 안부전화와 필요. 부부간 시댁, 처가문제로 논쟁한다. 69년 자녀 일로 고민하거나 상할 일이 생긴다. 81년 가정불화, 애정관계 문제있으니 이해하고 배려 필요. 93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게 좋다.

**46년** 자녀에 혼담이 오거나 상견례가 오갈 수 있다.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하고 구매의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획추진에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7년** 자녀에게 편안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때론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정전공금, 71년 맺을 내고 외출하라 한다. 이 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업 등 직장내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동하는 것은 신중을.